

2018. 12.
Vol.44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IS 2016) 결과¹⁾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개요

- 조사목적** ▶ ICCS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의 약자로 IEA(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국제비교조사²⁾
- ▶ 이 조사의 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시민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①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② 사회에 대한 신뢰의 수준, ③ 양성평등 의식, ④ 인종평등 의식, ⑤ 사회참여의 수준, ⑥ 환경의식, ⑦ 시민교육 환경을 포함한 지식수준, 태도와 가치관을 측정
- 조사대상** ▶ 24개 참여국가 및 도시에 소재한 총 3,800여개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8학년)중 총 94,000이상의 학생 및 이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37,000여명의 교사와 해당 학교의 교장
- 조사방법** ▶ 학급단위의 시험(test) 및 설문조사(survey)
- 조사기간** ▶ 2016년 2월 ~ 11월 (한국은 2016년 10월~11월)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 역량지표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Ⅳ’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2) ICCS의 모든 데이터는 IEA 홈페이지 <https://www.iea.nl/data> 를 통해 일반에 공개 되어 있음.

1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과 변화

■ 한국청소년들의 2016년 ICCS 시민지식 점수는 2009년의 551점 대비 564점으로 13점 향상

- 그러나 ICCS 참여국 시민지식점수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 ICCS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51점에서 47점으로 감소, 즉 절대적 수치는 향상되었으나 상대적 수치는 감소.
- 그 결과 전체 순위는 2009년 3위에서 2016년 6위로 낮아짐.
 - * 2009년 ICCS 평균 500점, 한국 551점(참여국 전체평균대비 +51점)
 - * 2016년 ICCS 평균 517점, 한국 564점(참여국 전체평균대비 +47점)
- 2009년 대비 가장 많이 점수가 높아진 국가는 스웨덴(42.2점 향상), 홍콩과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대만, 에스토니아 순으로 이들 국가는 시민지식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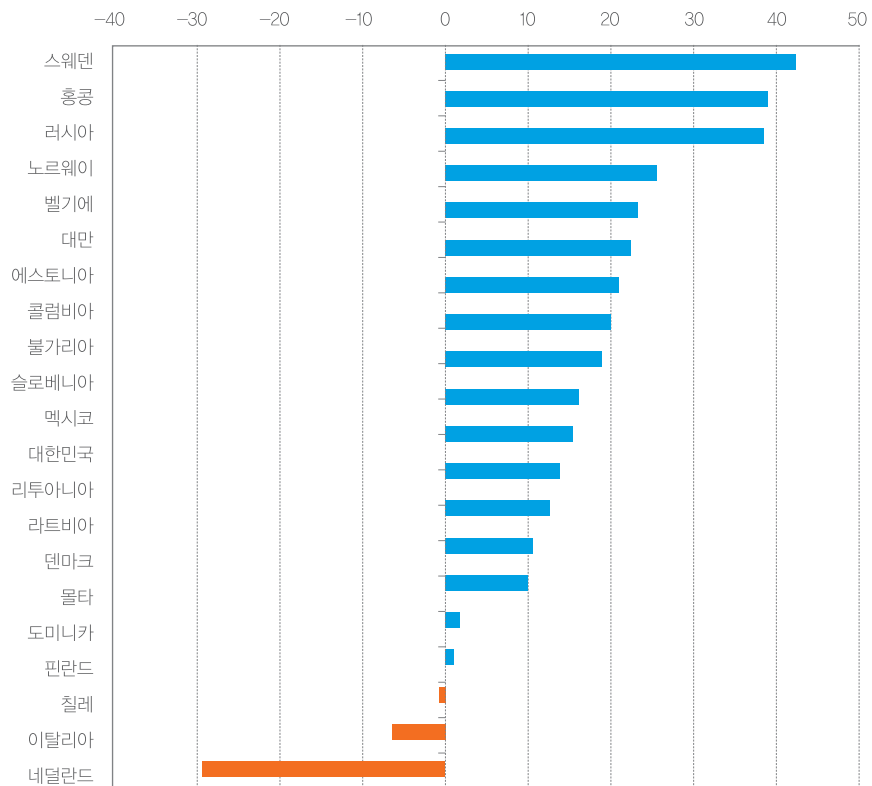


그림 1 ICCS 2009 대비 2016년 시민지식 변화량

■ 시민지식 수준의 성별차이 뚜렷

- 시민지식점수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가 낮았음(2009년과 동일).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몰타(38.2점)
-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성차이는 30.5점으로 ICCS 평균인 25점보다 컸음.
- 시민지식이 낮은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결국 시민사회의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시민지식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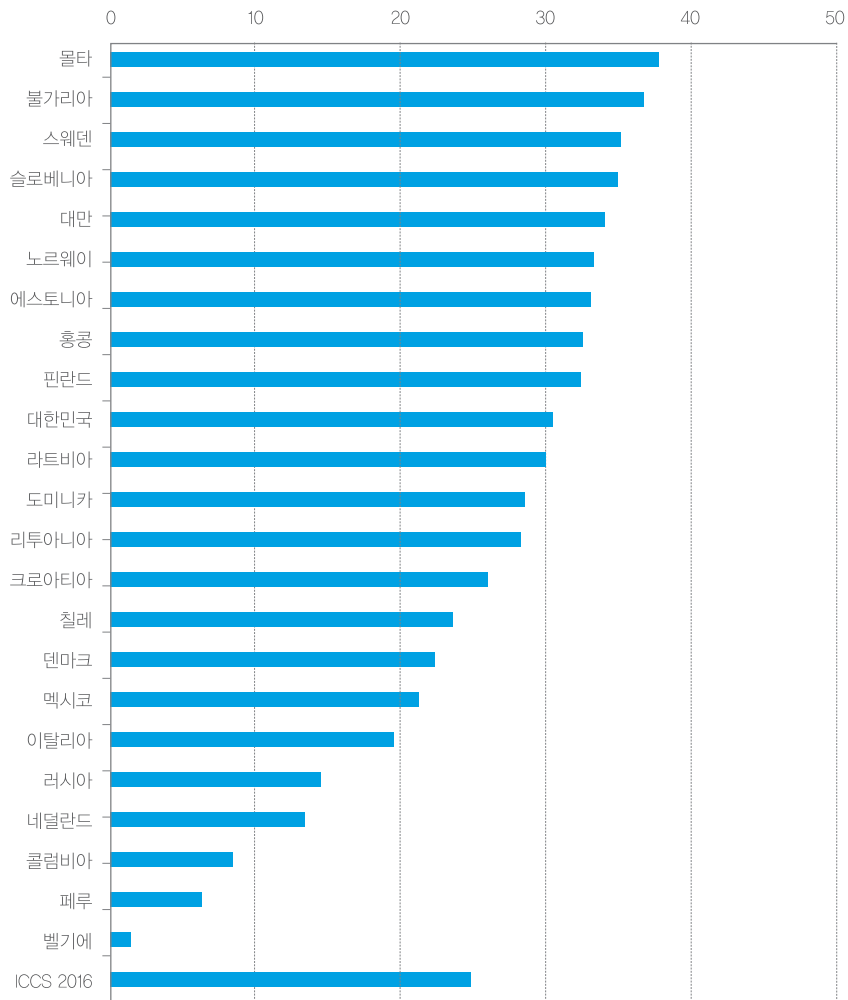


그림 2 시민지식 점수의 남자 대비 여자 점수의 격차

2 청소년들의 신뢰 수준

-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사회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임.
-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뢰수준은 2009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의 평균점수 차이
 - 2009년 ICCS 평균 56.4%, 한국 32.0%(-24.4%p 차)
 - 2016년 ICCS 평균 56.6%, 한국 45.0%(-11.6%p 차)

표 1 ICCS 2016 청소년들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

Country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 (TV, 뉴스, 라디오)			SNS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네덜란드	69.9	69.6	0.3	47.6	52.8	-5.2	51.5	57.0	-5.4	46.8	48.0	-1.2	31.5
노르웨이	78.8	67.3	11.5	56.2	51.6	4.5	42.6	48.3	-5.8	48.5	48.6	-0.1	26.6
대만	61.9	44.4	17.4	47.2	26.2	21.0	47.7	51.4	-3.7	43.9	43.3	0.6	46.0
대한민국	44.8	19.6	25.2	42.5	18.0	24.5	39.7	39.0	0.6	52.8	51.2	1.6	37.5
덴마크	73.9	72.4	1.5	52.0	56.1	-4.1	64.5	68.5	-4.0	59.3	55.6	3.7	30.7
도미니카	77.8	73.8	4.0	49.8	51.1	-1.4	62.0	61.0	1.0	77.8	76.1	1.7	60.5
독일	82.7			61.5			69.9			61.5			50.8
라트비아	59.6	32.2	27.4	39.6	24.9	14.8	46.7	58.0	-11.3	51.1	65.2	-14.1	47.3
러시아	89.0	88.3	0.6	53.9	50.9	3.0	44.7	51.2	-6.5	40.7	41.1	-0.5	40.1
리투아니아	74.2	54.0	20.2	52.5	32.9	19.6	59.9	66.0	-6.2	65.4	67.3	-2.0	48.6
멕시코	57.0	58.4	-1.4	37.4	34.7	2.7	51.7	46.6	5.1	56.0	57.1	-1.2	48.3
몰타	66.1	62.5	3.7	50.9	55.1	-4.2	49.1	50.3	-1.3	66.3	70.3	-4.0	59.7
벨기에	71.6	51.0	20.5	49.0	35.0	13.9	51.7	57.0	-5.4	45.9	47.5	-1.7	29.1
불가리아	58.8	56.1	2.7	37.7	31.9	5.7	60.6	64.3	-3.8	61.3	69.9	-8.7	60.5
스웨덴	78.9	73.2	5.7	61.2	60.3	0.9	56.1	67.2	-11.1	54.2	53.9	0.3	32.4
슬로베니아	48.7	56.4	-7.7	44.4	44.7	-0.3	68.8	70.8	-2.0	64.8	64.1	0.7	53.8
에스토니아	72.5	61.6	10.9	32.4	23.1	9.3	46.5	57.6	-11.1	46.8	54.3	-7.5	32.5
이탈리아	57.1	73.7	-16.6	43.8	51.8	-8.0	41.0	51.5	-10.5	75.5	80.9	-5.5	53.6
칠레	49.6	65.1	-15.5	32.5	34.5	-1.9	47.8	51.7	-4.0	61.7	73.6	-12.0	54.0
콜롬비아	55.2	62.0	-6.8	27.7	34.9	-7.2	43.5	48.8	-5.4	68.9	71.7	-2.8	49.0
크로아티아	41.6	-		27.4	-		57.7	-		53.6	-		47.5
페루	49.0	-		33.4	-		47.2	-		62.2	-		45.4
핀란드	82.1	82.4	-0.3	66.2	60.9	5.3	73.5	75.8	-2.3	81.9	80.4	1.5	49.3
홍콩	67.2	70.4	-3.2	45.0	38.3	6.8	39.8	30.2	9.5	58.9	41.6	17.3	50.8
ICCS평균	67.4	63.0	4.3	46.4	42.3	4.1	53.2	58.1	-4.9	59.4	62.3	-2.9	45.1

3 평등의식

■ 양성평등은 시민사회 구성과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주제 중 하나임.

- ICCS 2016 조사결과 참여국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1.2 % 포인트 증가. 단, 홍콩과 멕시코에서는 감소.
- 2016년 양성평등원칙에 동의하는 한국 청소년들의 비율은 52.7%으로 2009년 대비 2.2%p 향상되었으며 ICCS 참여국 전체평균보다 1.4%p 높음.
- 한국의 양성평등의식 전체 순위는 중간수준(11위)

표 2 양성평등 원칙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2016		2009		격차
스웨덴	57.2	(0.2)	55.3	(0.3)	1.9
노르웨이	56.7	(0.2)	54.1	(0.3)	2.7
대만	56.4	(0.2)	55.5	(0.2)	0.9
덴마크	56.2	(0.2)	54.3	(0.2)	1.9
독일	54.9	(0.3)	—	—	—
핀란드	54.6	(0.2)	53.3	(0.2)	1.3
벨기에	54.1	(0.3)	52.2	(0.3)	1.9
크로아티아	53.3	(0.3)	—	—	—
이탈리아	53.1	(0.2)	51.7	(0.2)	1.4
몰타	53.0	(0.2)	51.3	(0.3)	1.7
대한민국	52.7	(0.3)	50.5	(0.2)	2.2
슬로베니아	52.7	(0.2)	51.8	(0.2)	0.9
네덜란드	52.2	(0.3)	51.5	(0.5)	0.7
칠레	52.2	(0.3)	51.1	(0.3)	1.1
에스토니아	50.8	(0.3)	48.9	(0.3)	1.9
홍콩	50.7	(0.4)	51.5	(0.3)	-0.8
콜롬비아	50.3	(0.3)	49.3	(0.2)	1.0
리투아니아	48.9	(0.2)	48.2	(0.2)	0.7
페루	48.7	(0.3)	—	—	—
라트비아	46.5	(0.2)	45.9	(0.2)	0.5
불가리아	46.2	(0.3)	45.8	(0.3)	0.4
멕시코	45.3	(0.1)	45.4	(0.1)	-0.2
러시아	44.3	(0.2)	43.6	(0.1)	0.8
도미니카	44.3	(0.2)	43.5	(0.2)	0.8
ICCS 평균	51.3	(0.1)	50.1	(0.1)	1.2

■ 인종이나 이민족간의 평등의식 역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사회 구성과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임.

- ICCS 참여국 청소년들의 다민족/다인종 평등의식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비율(%)은 2.7 % 포인트 증가.
- 한국의 경우 2009년에는 다민족평등의식이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낮은 49.1%였으나 2016년에는 6.4% 포인트 증가하여 조사대상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표 3 다민족/다인종 평등 원칙에 동의하는 청소년 비율

	2016		2009		격차
대만	58.1	(0.2)	56.8	(0.2)	1.2
스웨덴	57.4	(0.3)	52.0	(0.3)	5.4
칠레	56.6	(0.2)	54.5	(0.2)	2.1
대한민국	55.7	(0.3)	49.3	(0.2)	6.4
노르웨이	55.4	(0.2)	50.8	(0.3)	4.6
멕시코	55.0	(0.2)	52.4	(0.2)	2.5
페루	54.2	(0.2)	—		—
홍콩	54.1	(0.3)	52.0	(0.3)	2.1
독일	54.0	(0.4)	—		—
콜롬비아	54.0	(0.2)	53.0	(0.2)	1.0
도미니카	54.0	(0.2)	50.8	(0.3)	3.1
리투아니아	52.9	(0.2)	50.0	(0.2)	2.8
에스토니아	52.8	(0.2)	50.7	(0.2)	2.1
핀란드	52.6	(0.2)	47.8	(0.2)	4.9
크로아티아	52.1	(0.2)	—		—
러시아	51.9	(0.4)	48.3	(0.2)	3.6
이탈리아	51.7	(0.2)	49.2	(0.2)	2.5
덴마크	51.2	(0.2)	48.5	(0.3)	2.7
슬로베니아	51.0	(0.2)	49.3	(0.2)	1.7
몰타	50.6	(0.2)	46.3	(0.3)	4.3
벨기에	50.3	(0.3)	47.8	(0.3)	2.5
네덜란드	48.9	(0.3)	47.1	(0.3)	1.8
불가리아	48.8	(0.3)	48.3	(0.2)	0.5
라트비아	47.7	(0.2)	45.9	(0.2)	1.8
ICCS 평균	52.9	(0.1)	50.1	(0.1)	2.7

4 청소년들의 시민참여와 소셜미디어

■ 최근 영향력이 커진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현황 조사 결과

- 각국의 중학교 2학년에게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44% 이상은 지난 1년간 인터넷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 52%로 ICCS 참여국 평균인 50%보다 높은 국가
- SNS 시민참여의 비율은 특히 대만(57%), 도미니카(53.5%), 페루(52.7%), 라트비아(52.6%), 한국(52%), 홍콩(51.9%)에서 높았음.

표 1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경험 전체	
대만	64.9	(1.0)	19.5	(0.7)	15.3	(0.6)	57.0	(0.2)
도미니카	37.0	(1.2)	18.6	(0.8)	23.2	(0.9)	53.5	(0.2)
페루	33.3	(0.9)	16.7	(0.7)	18.2	(0.7)	52.7	(0.2)
라트비아	37.3	(1.2)	13.8	(0.8)	14.4	(0.7)	52.6	(0.3)
대한민국	40.9	(1.2)	7.9	(0.6)	11.5	(0.7)	52.0	(0.2)
홍콩	28.9	(1.0)	16.3	(0.8)	15.7	(0.8)	51.9	(0.3)
러시아	40.3	(1.2)	7.5	(0.5)	9.6	(0.6)	51.8	(0.3)
리투아니아	37.5	(1.1)	7.7	(0.6)	8.7	(0.6)	51.5	(0.2)
콜롬비아	28.8	(0.9)	10.7	(0.6)	16.2	(0.8)	50.7	(0.2)
이탈리아	34.6	(1.0)	8.9	(0.5)	9.5	(0.6)	50.6	(0.2)
멕시코	29.2	(0.8)	12.3	(0.5)	11.8	(0.5)	50.5	(0.2)
불가리아	25.7	(0.9)	11.8	(0.9)	11.4	(0.6)	50.1	(0.3)
덴마크	37.9	(0.8)	3.3	(0.3)	4.4	(0.4)	50.0	(0.2)
스웨덴	33.2	(1.1)	4.9	(0.5)	7.0	(0.7)	49.9	(0.2)
에스토니아	26.3	(1.2)	4.9	(0.4)	7.7	(0.6)	49.4	(0.2)
크로아티아	33.5	(1.2)	3.3	(0.4)	3.2	(0.4)	49.0	(0.2)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경험 전체	
노르웨이	26.6	(0.7)	4.4	(0.3)	4.7	(0.3)	48.6	(0.2)
칠레	21.2	(0.6)	9.4	(0.5)	8.0	(0.4)	48.4	(0.2)
몰타	25.5	(0.7)	7.2	(0.4)	7.8	(0.4)	48.3	(0.2)
벨기에	23.5	(1.1)	5.3	(0.6)	6.0	(0.4)	48.3	(0.3)
독일	14.2	(1.0)	8.4	(0.6)	7.4	(0.7)	47.2	(0.2)
슬로베니아	20.4	(0.9)	2.7	(0.4)	4.5	(0.4)	46.9	(0.2)
핀란드	17.8	(0.9)	3.0	(0.3)	3.5	(0.4)	46.2	(0.2)
네덜란드	10.2	(0.7)	3.1	(0.3)	5.0	(0.5)	44.3	(0.2)
ICCS 평균	30.7	(0.2)	8.5	(0.1)	9.5	(0.1)	50.0	(0.0)